

'예술로 모두의 삶이 빛나는 전주'

전주문화재단, '전환·창의·혁신·확산' 4대 가치 실현 위해 4대 목표 제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 박옥선)은 2일 팔복 예술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전주문화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예술로, 모두의 삶이 빛나는 전주!'라는 비전에 재단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문화플랫폼'이 되기 위한 4대 가치와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재단은 전환·창의·혁신·확산이라는 4대 가치 실현을 위해 새 시대에 맞는 정책방향과 미래전략 제시, 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창작권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 개발, 문화적 삶의 일상화와 문화환경 복원과 치유라는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대표적 정책사업으로는 ▲디지털혁명과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기반사업, ▲예술가들의 자생력 강화사업, ▲생태예술 사업, ▲지역예술인재 양성사업과 시민 예술아카데미 사업, ▲예술의 새로운 매체개발과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복합 사업, ▲생활문화거점 지원사업, ▲팔복예술공장 레지던스 사업의 내실화와 지역작가 발굴 기획전 개최,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추진과 기초문화예술 교육거점 도시로서의 환경기반구축, ▲최고의 스탓핀과 뛰어난 배우들로 제작된 전주대표브랜드 공연, ▲전주 백인의 자화상 기록사업 10년 아카이브 전시와 연구세미나 진행, ▲이외 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창작권 강화사업과 일상속의 예술향유 사업 등이다.

특히, 재단은 올해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술후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온 후원문화조성회의를 본격적으로



(재)전주문화재단은 2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전주문화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로 가동한다. 소액의 크라우드펀딩에서부터 기업의 후원까지 다각적인 후원을 이끌어 내 재단 정책사업과 지역예술가에게 직접적인 후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옥선 대표이사는 "팬데믹의 일상화로 예술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예술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예술을 통한 회복운동과 공진화를 위해 전주문화재단이 선제적 문화정책을 제시코자 한다"며 "예술인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모두의 삶이 빛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는 제15회 전북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품 중 엄선한 작품을 대상으로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층 열린미술관에서 홍보 전시를 진행한다.

'전북도山河, 숨겨진 비경을 찾다!'

4월 30일까지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층 열린미술관서 전시

전북도는 제15회 전북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품 중 엄선한 작품을 대상으로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층 열린미술관에서 홍보 전시를 진행한다.

'전라북도山河, 숨겨진 비경을 찾다! 사진전'은 지난 2020년 제15회 전북관광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70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숨겨진 비경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작품들로 엄선했다.

전시될 작품들은 전라북도 7대 비경사진 7곳 ▲정읍(라벤더농원) ▲장수(주촌민속마을) ▲남원(서도역) ▲고창(동림저수지) ▲무주(내도리) ▲진안 용담댐(삼바위) ▲전주(팔복예술공장)를 대표작품으로 다양한 전라북도의 비경을 담은 작품들과 전북

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한 홍보자료를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관광사진 전시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찾는 전국의 공무원 및 방문객들에게 전북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지만, 얼마 전 시작된 예방접종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을 담아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찾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온라인 명사특강 '근면 우직 유유자적, 소'

천진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전하는 민속학 이야기

12일 오전 10시 전주박물관 홈페이지·유튜브서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3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행사로 온라인 명사특강 천진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이 전하는 민속학 이야기 '근면 우직 유유자적, 소'를 12일 오전 10시 전주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선보인다고 전했다.

전주박물관 홈페이지(jeonju.museum.go.kr)의 행사 카테고리인 '온라인 문화체험실'에서 영상으로 공개할 이번 명사특강은 유튜브의 경우 '국립전주박물관'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신축년(辛丑年) 흰 소띠 해를 맞아 '소'를 주제로 강연할 이번 특강은 12지신 중 하나인 소에 관한 '띠 달본'과 다양한 유물과 유적

을 통한 시대적 '소의 상징성'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볼 예정이다.

농경사회를 이루던 우리 민족의 삶속에서 소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역사적, 신앙적, 민속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네 풍속에서 '소'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고 드러났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비대면 온라인 명사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구를 지켜라'... 전주공예품전시관, 친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대체재로 '공예품' 사용 제안·SNS 해시태그 이벤트도 추진

한국전통문화재단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무공해·유공예)'를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일명:고고챌린지)'이 확산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참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전시관은 플라스틱 대체재로 '공예품' 사용을 제안했다.

후으로 빛은 도자와 나무를 활용한 목공, 옷나무의 진액으로 마감하는 옷칠 등 공예기술로 제작된 공예품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제작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용기, 휴지,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공예품으로 옷칠 텀블러·수저, 과일 꽃이(유기), 머그잔, 한지 나

뭇잎트레이·접시, 배자 손타올 등을 소개한다.

또 참여 확대를 위해 10% 할인과 함께 손타올을 증정하는 등 SNS 해시태그(#) 이벤트도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공예품 구매인증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인 '#친환경캠페인, #지구를지켜라, #무공해유공예'를 게시물에 입력한 후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면 된다.

김선태 원장은 "탈 일회용품, 탈 플라스틱은 무공해, 친환경 캠페인 동참은 유공해"라며 "무공해, 유공예를 통해 환경 살리기에 모두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2-8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